

보도일시 (인터넷) 2024. 7. 17.(수) 11:00,
(지면) 2024. 7. 18.(목) 조간

배포 2024. 7. 17.(수) 06:00

여름철 적조, 신속 대응을 위해 실전 같은 모의훈련 실시

- 전남 고흥군에서 민-관 합동(해수부, 해경, 지자체, 어업인)으로 적조 모의훈련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7월 18일(목) 전남 고흥군 우두해역에서 전라남도, 고흥군과 합동으로 2024년 적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적조생물은 조류를 타고 주변으로 확산되기 쉬우므로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적조 발생 시 신속한 적조 방제를 위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숙지하는 민-관 합동 대응 훈련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모의훈련은 전남 고흥군 우두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표*되었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된다. 훈련 현장에서 해수부, 해경, 지자체, 어업인 등은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도선, 정화선, 어선 25척, 해경 항공기 등을 동원하여 황토를 살포하고 양식생물을 긴급 방류하는 등 실제 상황처럼 조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 바닷물 1mL당 유해적조 생물이 100개체 이상 분포 시, 국립수산물과학원이 발표

국립수산물과학원에 따르면 7월 말 이후 적조주의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황토나 살포기 등 장비를 보급하였으며 적조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적조 모의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신속한 적조 방제를 위해서는 해수부, 해경, 지자체, 어업인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훈련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며, “해양수산부는 적조가 발생하면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적극적으로 방제 작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승준 (044-200-5610)
		담당자	사무관	심수빈 (044-200-5392)
			사무관	조효종 (044-200-5622)

